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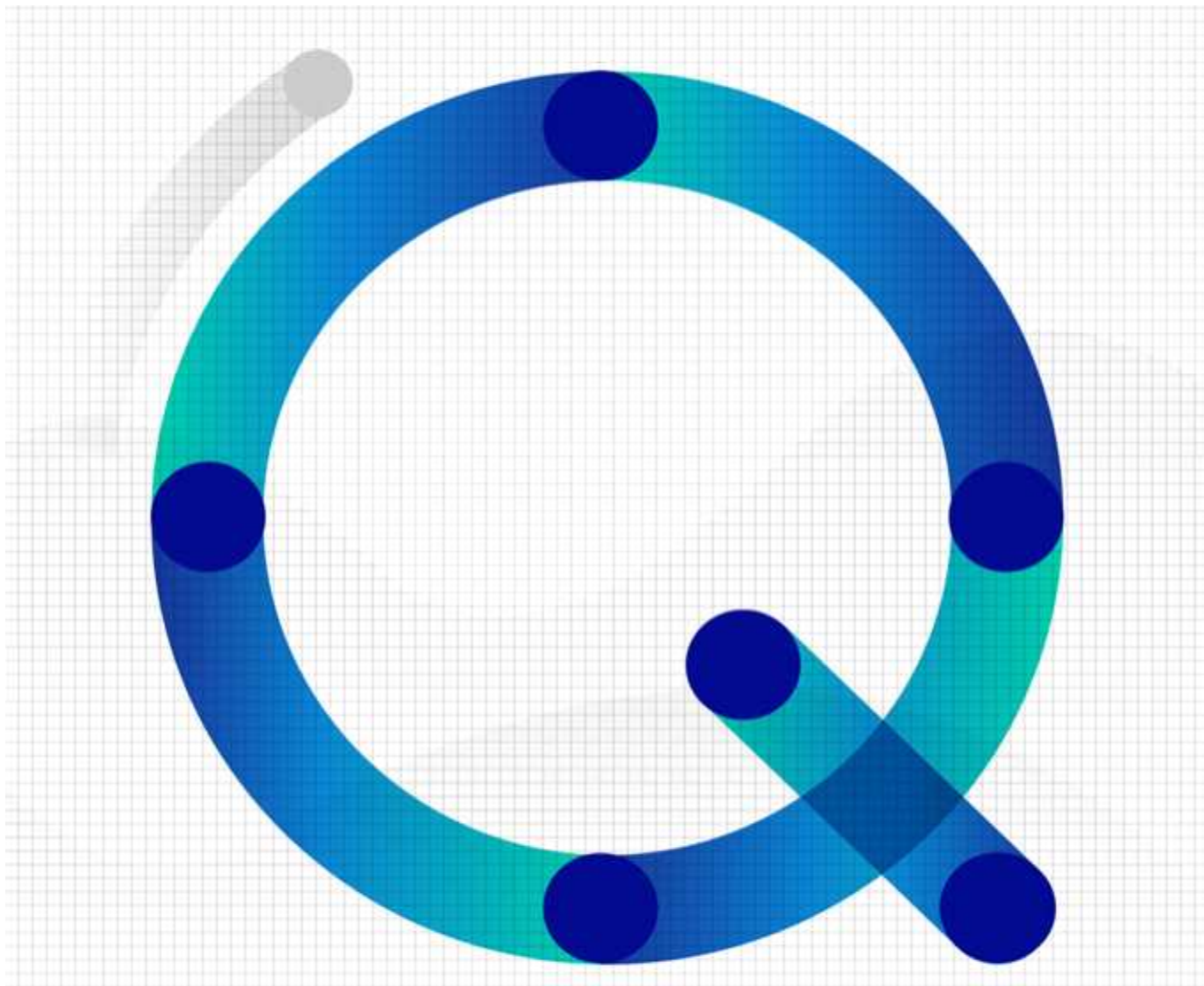
2023년 하반기 해외건설 산업 동향

<요약>

-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 II. 세계 인프라 시장 동향
-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 IV. 시사점

작성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2-3612)



<요 약>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시장 전망) 2023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3.8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14.6조 달러로 예상

-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빠른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단가 증가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으며,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3.8조 달러
-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금리인상 사이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철강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부터는 회복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하강의 우려도 존재

(지역별) 2024년 지역별 건설 시장규모는 아시아 7.44조 달러, 유럽 3.55조 달러, 북미 2.46조 달러, 중동·아프리카 0.68조 달러, 중남미 0.49조 달러 순

- 2023년 지역별 시장규모는 아시아 6.88조 달러, 유럽 3.44조 달러, 북미 2.38조 달러, 중동 및 아프리카 0.62조 달러, 중남미 0.47조 달러
- 2023년 아시아 시장 전망치는 7.46조 달러였으나, 아시아 건설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건설시장이 역성장을 하면서 6.88조 달러로 전망치를 크게 하회

(중동 발주 동향)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1,6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으며, 2023년 계약 금액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2016년 이후 침체를 겪고 있는 중동시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지역 국가들의 지출 여력 확대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발주되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을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Amiral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3년 중동 프로젝트 계약금액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2024년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와 같은 대규모 발주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II. 세계 인프라 시장 동향

2023년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59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5.01조 달러로 예상

- 2023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예상보다 낮은 전년 대비 6.3% 성장에 그쳤으나, 2024년에는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5.53조 달러, 2030년 7.71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분야별) 2023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2.16조 달러, 발전 등 에너지 분야 1.74조 달러, 수처리 분야 0.68조 달러

- 인프라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 분야는 매년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시장규모도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42조 달러, 2025년 2.69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24년 에너지 분야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1.82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5년 시장규모는 1.98조 달러 전망

(지역별) 2024년 지역별 시장규모는 아시아 3.02조 달러, 유럽 0.95조 달러, 북미 0.52조 달러, 중동 및 아프리카 0.30조 달러, 중남미 0.22조 달러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수주 현황)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50억 달러를 예상했으나, 전망치를 소폭 못 미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하반기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력 시장인 중동 수주가 전년 대비 증가
- 핵심 수주지역 중 하나인 아시아 수주 부진이 올해 전망치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

(수주 전망) 2024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 안정화 및 원전 등 대형 수주 가능성으로 380억 달러 전망

- 국내 주택 등 건설경기가 하향으로 국내 건설기업들의 시선이 해외수주 확대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인 팀코리아 전략도 수주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IV. 시사점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글로벌 금리안정 등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2024년 이후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5.8% 성장할 전망

연간 해외수주 400억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팀코리아 역량 강화가 필요

- 플랜트 및 시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역량을 인프라 및 사업개발·운영 분야로 밸류체인 확대가 필요하며, 사업개발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모델 “팀코리아” 체제의 활성화가 필요
- 원전 수주처럼 대형 발주는 정치 및 외교 등 국가간 협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패키지 딜 확보가 중요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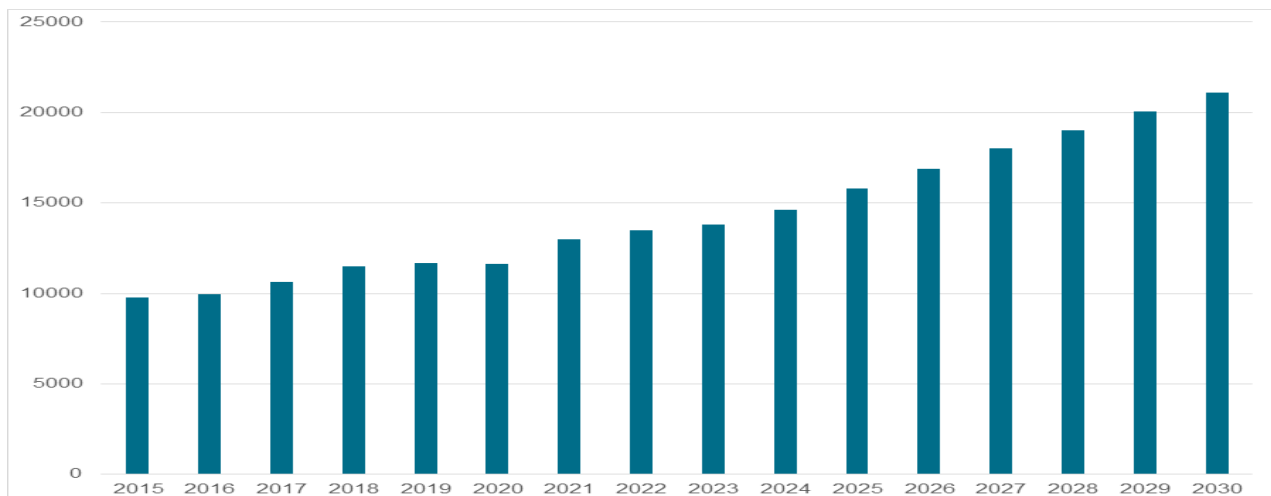
1. 세계 건설시장 동향

2023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3.8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14.6조 달러로 예상

-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2021년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 진입함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조절에 나서고 있음
-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빠른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단가 증가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
-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금리인상 사이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철강 및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부터는 회복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하강의 우려도 존재
- 글로벌 금리인상은 2023년 하반기에 마무리되고, 2024년 하반기에는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23년 부진했던 세계 건설시장은 2024년 이후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시장규모는 21.1조 달러에 달할 전망
- 2020년 코로나 위기로 역성장을 했던 것을 제외하고 세계 건설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 6.3%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세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2. 지역별 건설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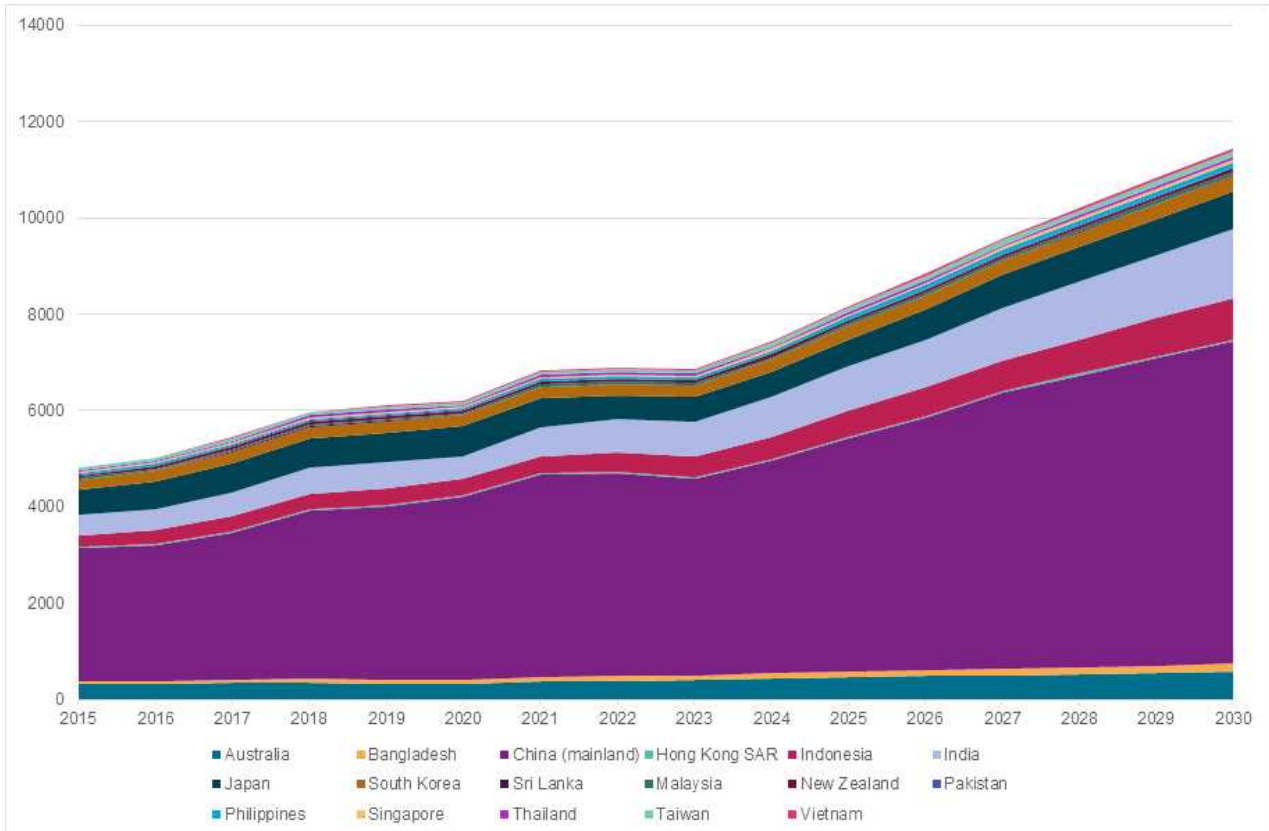
(아시아) 20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6.88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7.44조 달러 전망

- 2023년 아시아 시장 전망치는 7.46조 달러였으나, 아시아 건설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건설시장이 역성장을 하면서 6.88조 달러로 전망치를 크게 하회
- 2023년 중국 건설시장은 4.61조 달러로 예상되었으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GDP의 13% 이상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예상을 깨고 2.3% 감소한 4.10조 달러를 기록
- 중국시장의 영향을 받아 2023년 아시아 건설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플러스 성장을 기록
- 2024년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1% 성장한 7.44조 달러로 예상되며, 2030년 11.44조 달러 전망
- 2024년 중국 건설시장 예상치는 5.2조 달러에 달했으나, 중국 경기 불확실성으로 2023년 하반기 수정 전망치는 4.42조 달러
- 건설산업 침체는 중국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예정
- 하지만 중국 거대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 등 건설산업의 부채 문제는 건설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2023년 인도 건설시장 규모는 당초 예상치 6,540억 달러를 넘어선 7,38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8,32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2030년 시장규모는 1.43조 달러로 연 10%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3년 일본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4,99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5,127억 달러 전망
- 2023년 호주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3,958억 달러로 예상되며, 글로벌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4,378억 달러 전망
- 글로벌 금리인상 영향으로 2023년 동남아시아 주요국 건설시장 규모는 기존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4분기에 글로벌 금리인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동남아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회복세에 진입할 전망
- 2023년 주요 동남아시아 수정 전망치는 인도네시아(4,447 → 4,266억 달러), 필리핀(537 → 563억 달러), 베트남(462 → 396억 달러), 말레이시아(436 → 426억 달러), 태국(459 → 416억 달러)
- 2024년 시장규모는 인도네시아 4,692억 달러, 필리핀 636억 달러, 말레이시아 465억 달러, 태국 447억 달러, 베트남 422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아시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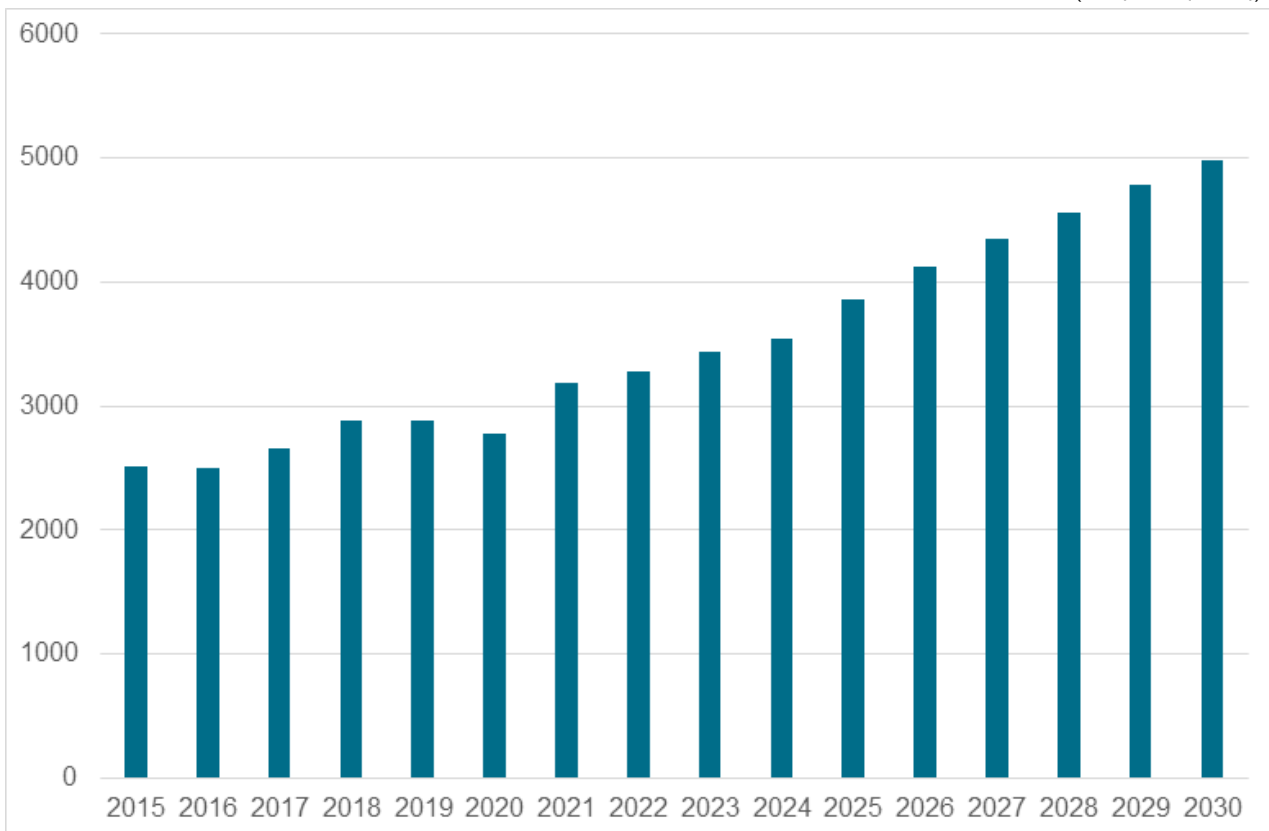
(유럽) 2023년 유럽 건설시장 규모는 3.44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3.55조 달러

- 2020년 역성장을 기록했던 유럽 건설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24년 유럽 건설시장은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면서 안정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이후 유럽 건설 시장규모는 LNG, 태양광 및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등 새로운 가스 공급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건설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가 커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2025년 유럽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3.87조 달러
- 유럽 주요 국가의 2024년 시장규모는 영국 5,264억 달러, 독일 5,052억 달러, 프랑스 4,194억 달러, 이탈리아 3,126억 달러, 러시아 2,700억 달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시기에 따라 우크라이나 건설시장의 규모는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5년부터 인프라 및 주택 시설 복구를 위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
- 2023년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규모는 10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4년 종전될 경우 시장규모는 2024년 147억 달러, 2025년 257억 달러, 2026년 359억 달러, 2027년 47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유럽 건설시장 규모는 2025년 3.87조 달러, 2026년 4.13조 달러, 2027년 4.35조 달러, 2030년 5.00조 달러 전망

유럽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북미) 2023년 북미 건설시장 규모는 2.38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2.46조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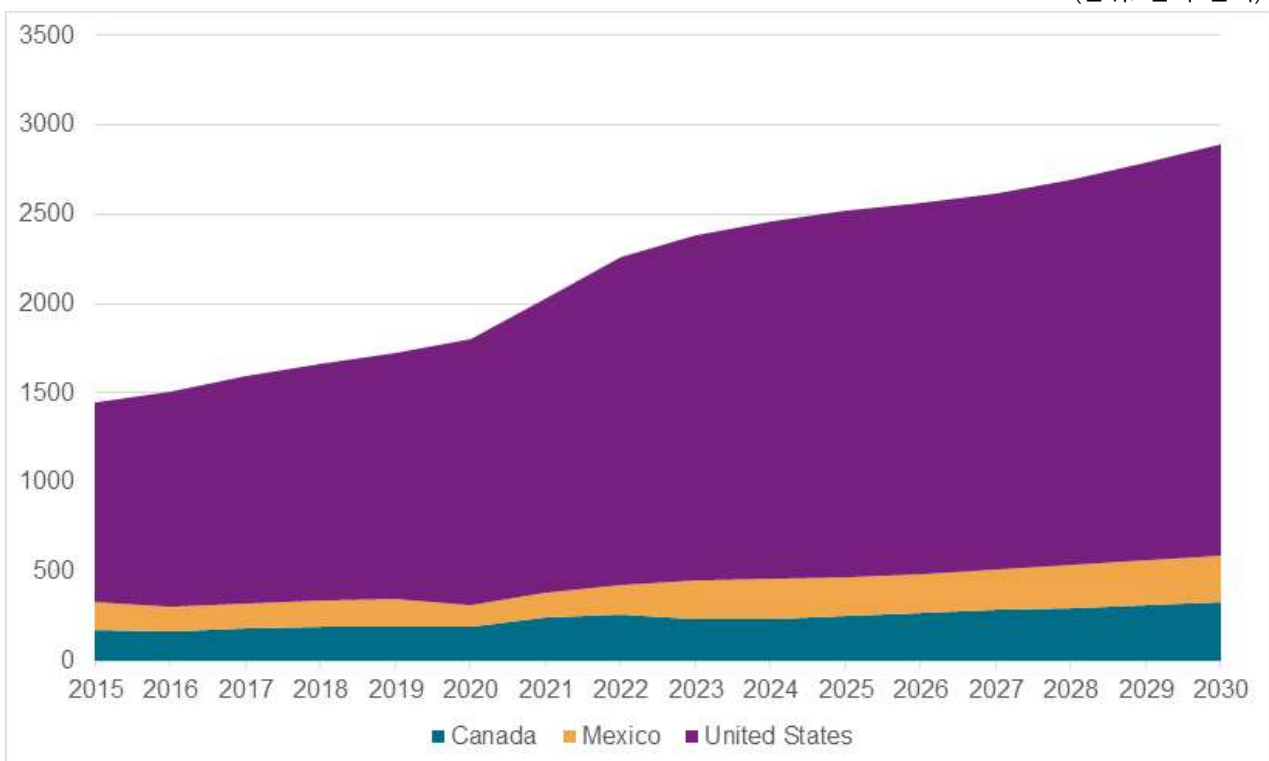
- 2023년 북미 건설시장 기존 예상치는 2.24조 달러였으나, 북미지역 경기 호조로 예상보다 증가한 2.38조 달러
-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은 상황



- 2024년 미국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00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시장규모는 2.05조 달러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금리인상 효과가 2024년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둔화에 따른 건설수요 증가세도 약화될 전망

북미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중동 및 아프리카) 2023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6,239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6,773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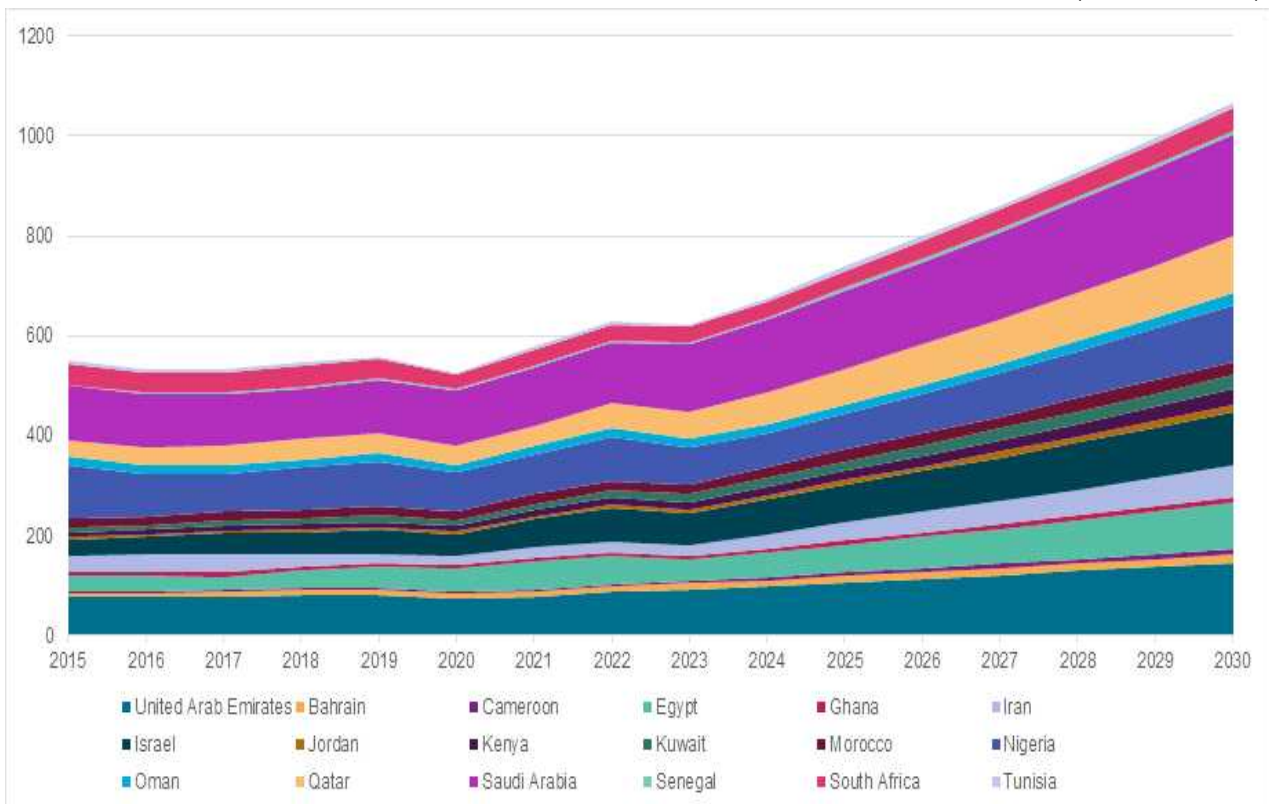
- 세계 건설시장의 4.6%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나, 민간기업에게 시장 개방도가 높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
- 2023년 중동 및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글로벌 금리인상 및 건설원가 상승 여파로 역성장을 기록
- 2024년 역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시장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



- 중동·아프리카 건설 시장규모는 2025년 7,384억 달러, 2026년 7,804억 달러, 2027년 8,35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24년 주요 중동국가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1,473억 달러, UAE 998억 달러, 나이지리아 676억 달러, 카타르 628억 달러, 이란 311억 달러 순
-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등 주요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3% 증가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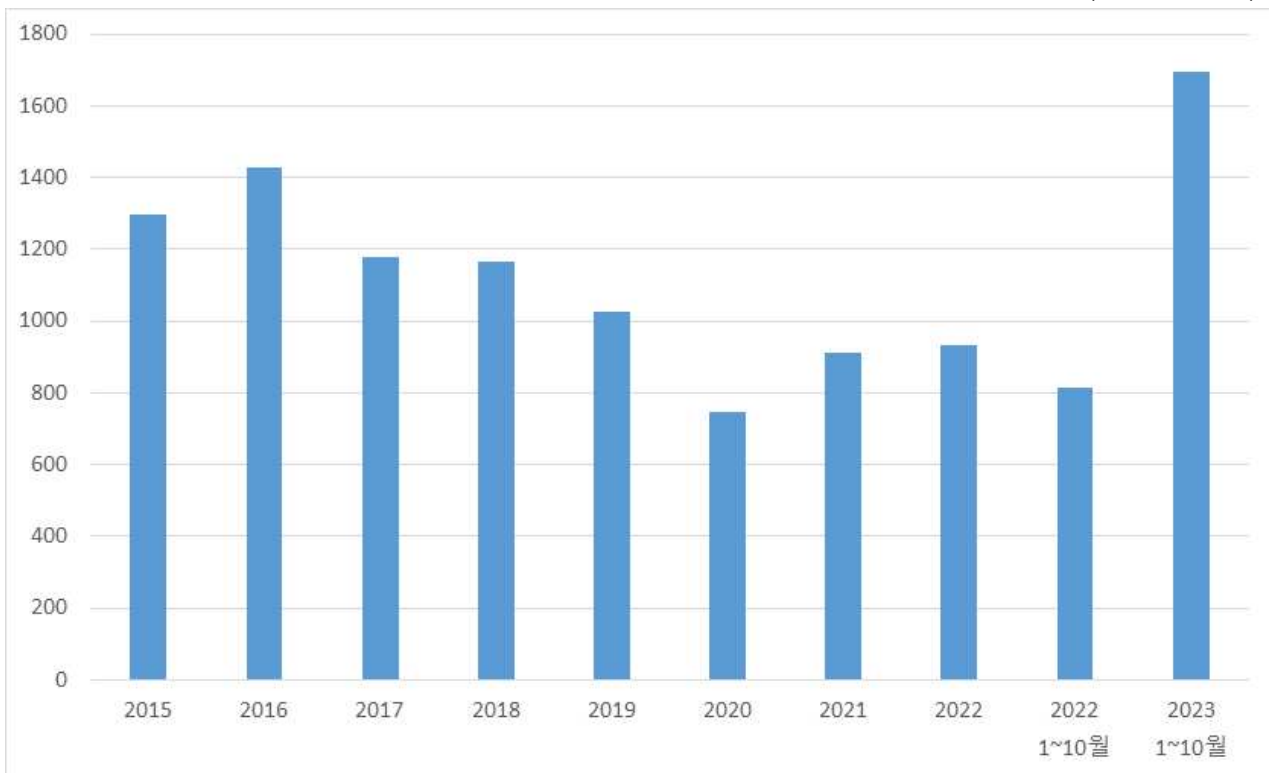


(중동 발주 동향)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1,69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했으며, 2023년 계약 금액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중동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의 재정균형유가는 배럴당 50~65 달러 선이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재정 균형 유가 수준을 넘어서 중동지역 발주 여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2016년 이후 침체를 겪고 있는 중동시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지역 국가들의 지출 여력 확대에 그동안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발주되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을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Amiral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3년 중동 프로젝트 계약 금액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공급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
-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2024년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와 같은 대규모 발주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중동 프로젝트 계약 체결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M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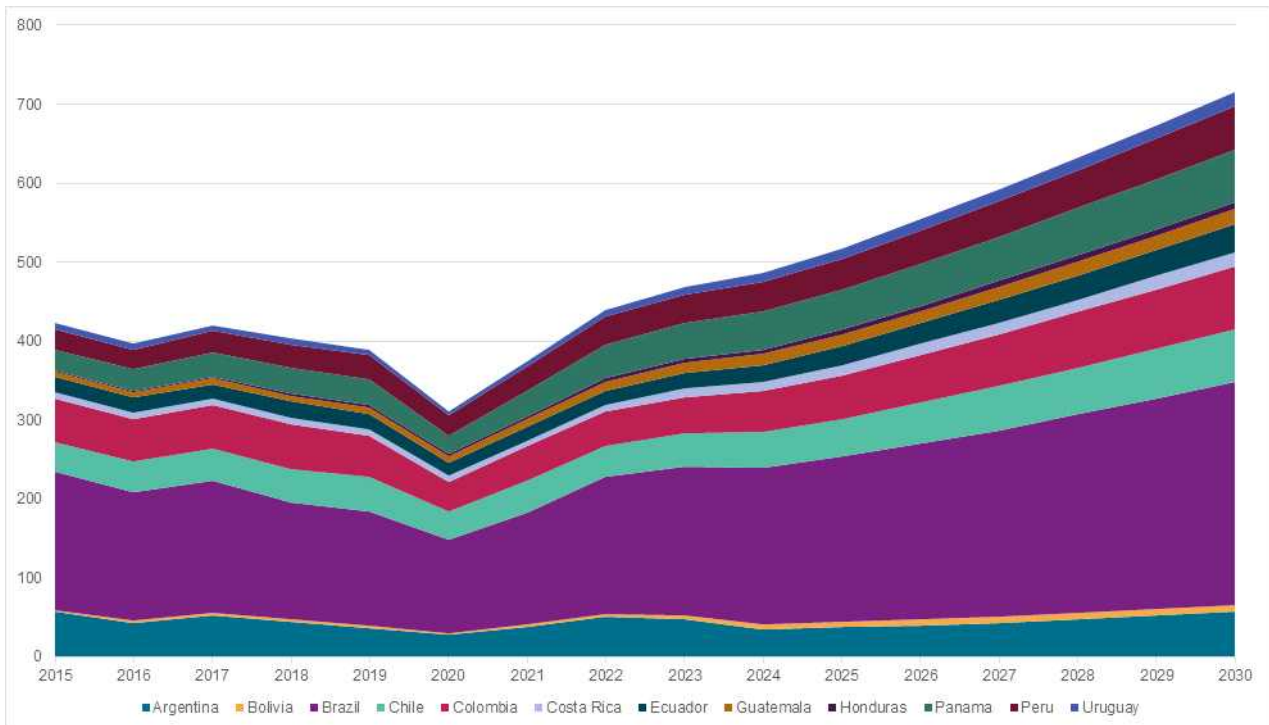


(중남미) 2023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4,69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4,869억 달러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 이후 중남미 건설시장은 2021년부터 반등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
- 2024년 중남미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5,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2024년 주요 중남미 건설 시장규모는 브라질 1,990억 달러, 콜롬비아 520억 달러, 파나마 478억 달러, 칠레 442억 달러, 아르헨티나 352억 달러 순

남미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II. 세계 인프라 시장 동향

2023년 세계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59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5.01조 달러로 예상

- 2023년 기준 세계 건설시장에서 인프라 시장 비중은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시장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건설시장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중
- 2023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경제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규모는 5.53조 달러, 2030년 7.71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화석에너지 기반의 인프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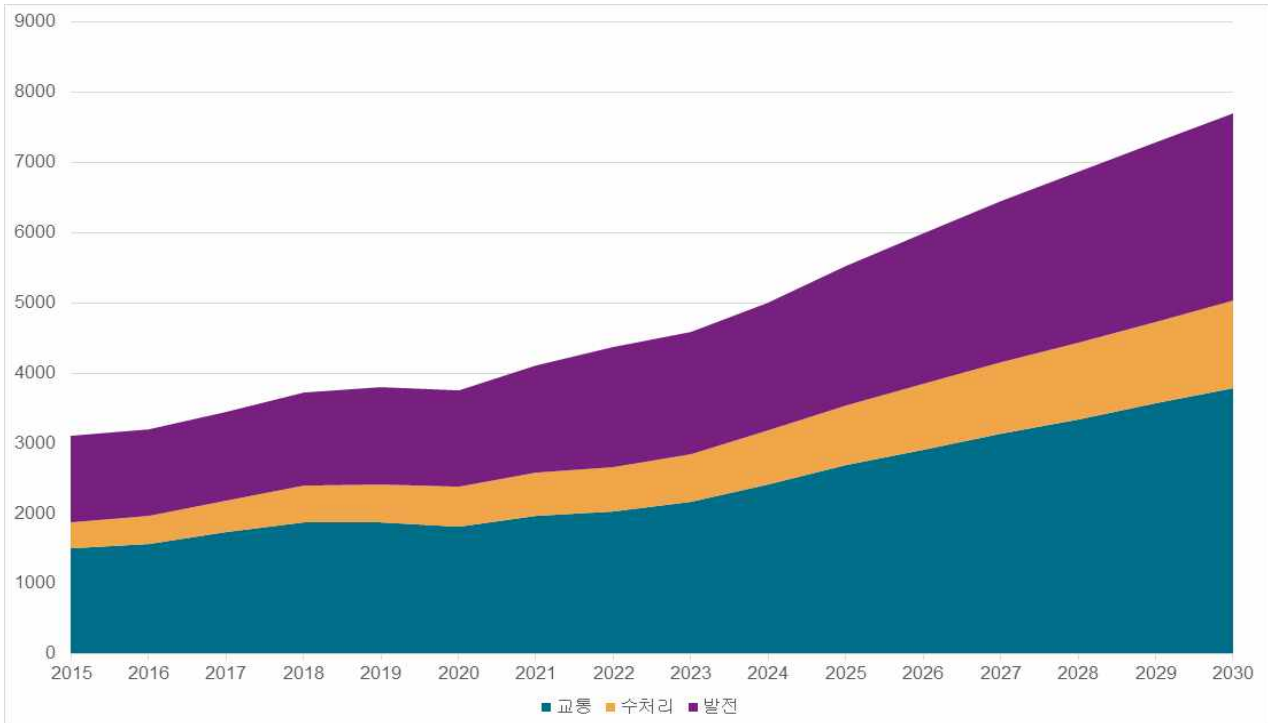
(분야별 동향) 2023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2.16조 달러, 발전 등 에너지 분야 1.74조 달러, 수처리 분야 0.68조 달러

- 인프라 분야별 시장 비중은 교통 분야 48.3%, 에너지 분야 36.3%, 수처리 분야 15.4%를 차지
- 인프라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 분야는 매년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시장규모도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42조 달러, 2025년 2.69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낡은 교통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기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신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신규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중
- 2024년 에너지 분야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1.82조 달러로 예상되며, 2025년 시장규모는 1.98조 달러 전망
- 2024년 신규 발전소 건설물량 중 약 500G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 지구온난화에 따라 글로벌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처리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크게 증가
- 2024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723억 달러, 2025년 시장규모는 8,605억 달러 전망



세계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2. 지역별 인프라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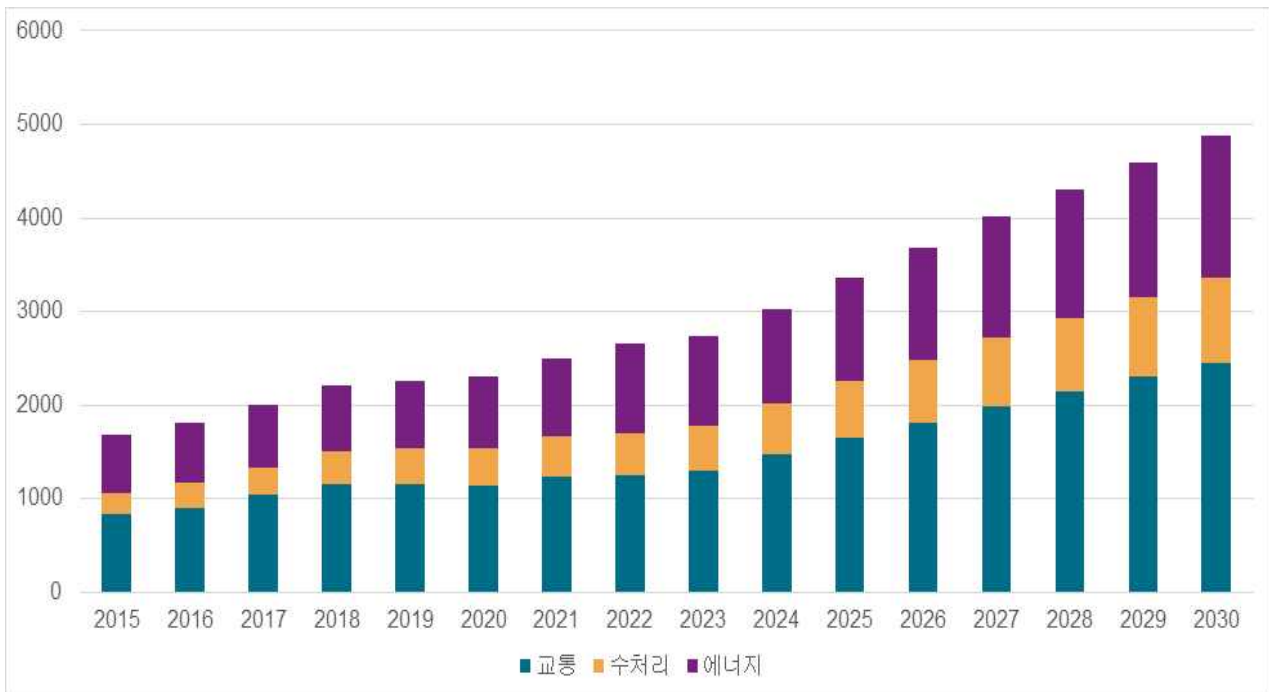
(아시아) 2023년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2.74조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인프라 시장규모는 3.02조 달러로 전망

- 2023년 기준 세계 인프라 시장에서 아시아지역 비중은 61%로 규모 및 성장률 측면에서 세계 인프라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지역
- 2023년 아시아지역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전년 대비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
- 2023년 기준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2023년 중국 인프라 시장규모는 1.62조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아시아지역 인프라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진 가장 큰 원인
 - 기존 성장률은 8.8%로 예상되었으나, 중국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전년 수준에 그침
 - 낮아진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2024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80조 달러 전망

- 2024년 주요 아시아 국가 인프라 시장규모는 일본 2,588억 달러, 인도 2,197억 달러, 인도네시아 2,479억 달러, 호주 1,175억 달러, 태국 250억 달러, 필리핀 250억 달러, 말레이시아 173억 달러, 베트남 119억 달러
- 2024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도로 등 교통 분야 1.47조 달러, 에너지 분야 1.0조 달러, 수처리 0.54조 달러를 형성해 전년 대비 각각 13.1%, 4.2%, 14.2%씩 증가
- 2025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1.66조 달러, 에너지 분야 1.10조 달러, 수처리 0.61조 달러
- 2030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2.46조 달러, 에너지 분야 1.51조 달러, 수처리 0.91조 달러를 형성할 전망
- 아시아지역은 글로벌 인프라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로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커질 전망

아시아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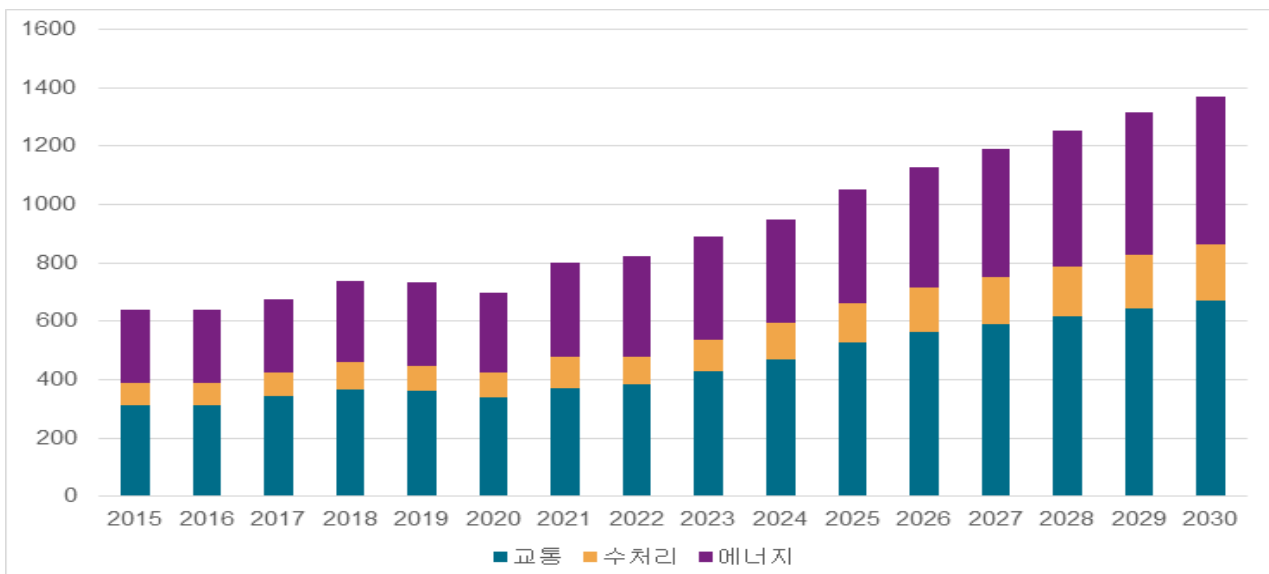
자료: IHS

(유럽) 2023년 인프라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8,892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9,486억 달러로 전망

- 당초 2023년 유럽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8.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상보다 낮은 6.7%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
-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단가가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 건설수요가 예상보다 감소
- 금융상황이 안정화되는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선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 중립 및 ESG 등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용 교통 시스템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2024년 분야별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4,710억 달러, 에너지 분야 3,544억 달러, 수처리 1,233억 달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예상보다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이 뒤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우크라이나 인프라 시장규모는 2024년 87억 달러에서 수정치 74억 달러
- 2025년 시장규모는 131억 달러, 2026년 189억 달러, 2027년 25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야별로는 2025년 기준 에너지 분야 193억 달러, 교통 분야 58억 달러, 수처리 13억 달러
- 2030년 인프라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6,725억 달러, 에너지 분야 5,095억 달러, 수처리 1,898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유럽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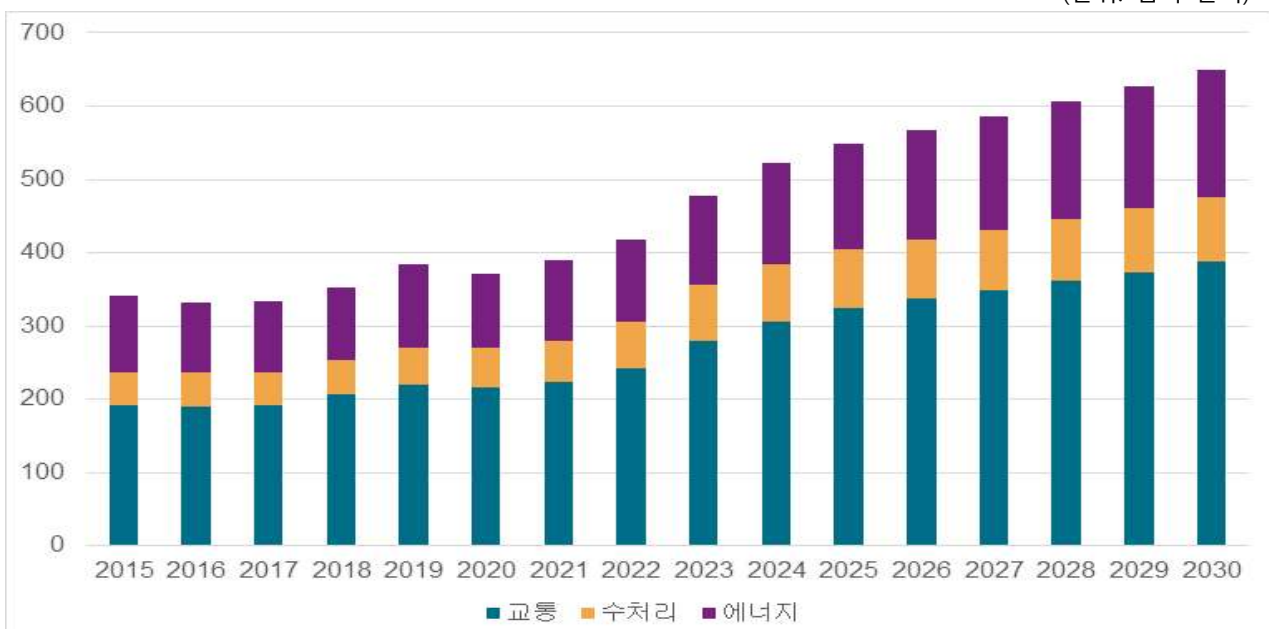
자료: IHS

(북미) 2023년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4,78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5,226억 달러로 전망

- 2023년 북미 인프라 시장규모에 대한 기존 예상치는 4,588억 달러였으나, 수정 예상치는 4,780억 달러로 예상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기상황이 호황인 상황이며, IRA 시행으로 친환경 분야 인프라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3년 미국 인프라 투자액은 11.6% 증가한 3,396억 달러로 북미 인프라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 2024년 북미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9.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이슈가 변수
- 2024년 미국 인프라 시장 성장률은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2025년 이후 북미 인프라 시장의 고성장은 경기과열 이슈가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완만해 질 것으로 예상
- 2024년 분야별 북미 인프라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3,059억 달러, 에너지 분야 1,381억 달러, 수처리 784억 달러이며, 2025년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 분야 3,249억 달러, 에너지 분야 1,447억 달러, 수처리 794억 달러
- 2030년 북미 인프라 시장규모는 6,498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 중 미국 시장규모는 4,607억 달러로 71%를 차지
- 2030년 분야별 시장규모는 교통 3,875억 달러, 에너지 1,731억 달러, 수처리 892억 달러

북미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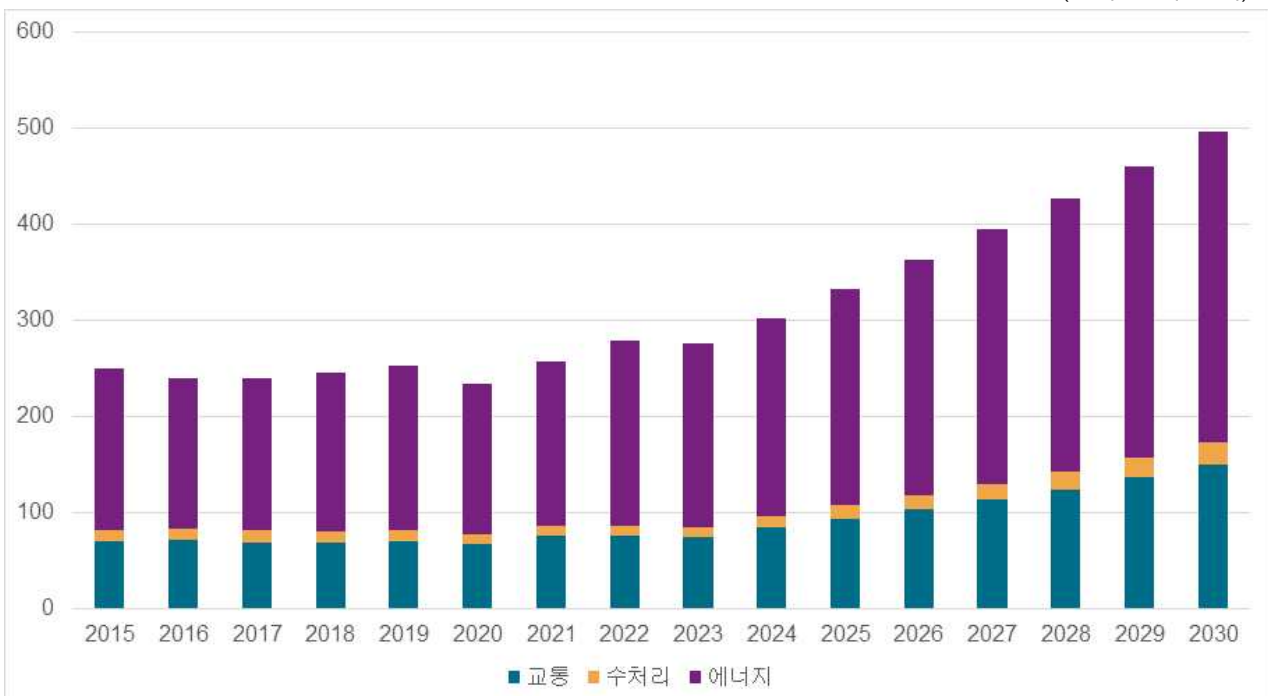
자료: IHS

(중동·아프리카) 2023년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2,752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3,021억 달러로 전망

- 중동·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의 최대 변수는 유가이며, 유가 상황에 따라 시장규모가 결정
- 2023년 중동·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은 2,7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
- 중동·아프리카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2024년 인프라 시장규모도 3,2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국 및 인도 등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어 현재 공급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
- 2024년 글로벌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유가는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전망
- 2024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는 에너지 분야 2,054억 달러, 교통 분야 844억 달러, 수처리 123억 달러
- 원유 수출이 주 수입원인 관계상 에너지 분야 투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며, 최근 화력발전 대신 발전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있는 것도 주요 특징
- 2030년 시장규모는 기존 예상치 4,760억 달러보다 증가한 4,954억 달러에 달할 전망

중동·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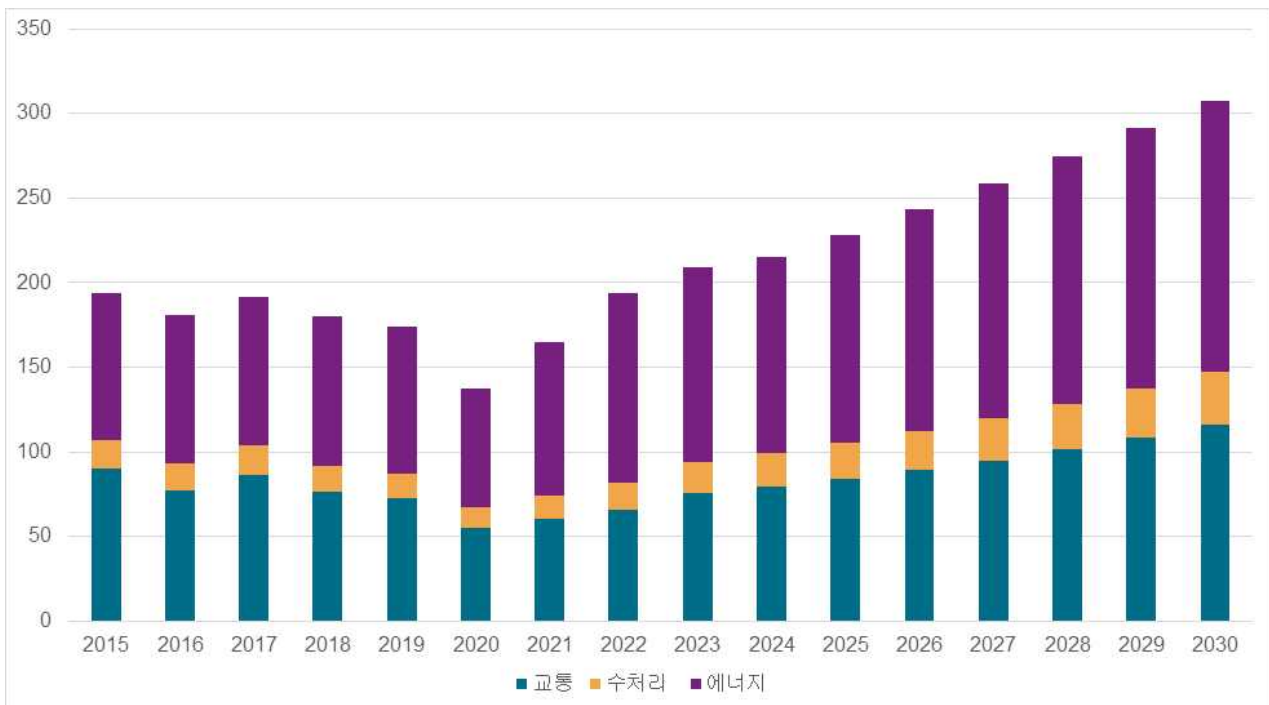
자료: IHS

(중남미) 2023년 인프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2,088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4년 시장규모는 2,151억 달러로 전망

- 주요 대륙 중 인프라 시장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며, 정치 불안 및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프라 투자도 저조한 상황
- 2024년 기준 분야별 시장규모는 에너지 분야 1,158억 달러, 교통 분야 790억 달러, 수처리 203억 달러
- 최근 IRA 시행으로 리튬 등 전략 물자에 대한 주요 공급처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
- 중남미 인프라 시장규모는 2025년 2,434억 달러, 2030년 3,073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중남미 인프라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III. 해외건설 수주 동향

2023년 11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277억 달러

-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북미 94.5억 달러, 중동 83.9억 달러, 아시아 56.7억 달러, 중남미 13.8억 달러, 유럽 17.8억 달러, 아프리카 10.8억 달러 기록
- 핵심 수주지역인 중동지역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11.4% 증가했으며, 아시아는 전년동기 대비 48.8% 감소
-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규모의 Amiral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증가에 크게 기여
- 북미 수주액은 IRA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및 태양광 생산 건설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73% 증가해 수주 최대 지역으로 부상
- 유럽지역 수주는 전년동기 대비 39.8% 감소했으며, 남미는 전년동기 대비 156% 증가함
- 공종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플랜트 120억 달러, 건축 114억 달러, 토목 15.4억 달러를 기록
- 건축분야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68.1%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해외 생산을 위한 공장 분야 수주액이 98.9억 달러를 차지
- 해외 인프라 등 토목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71.4% 감소해 주요 분야 중 가장 저조한 수주실적을 기록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50억 달러를 예상했으나,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하반기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력 시장인 중동 수주가 전년 대비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대형 수주가 발주되고 있으며, 상반기 Amiral 등 대형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중동 수주는 전년 대비 증가
- 핵심 수주지역 중 하나인 아시아 수주 부진이 올해 전망치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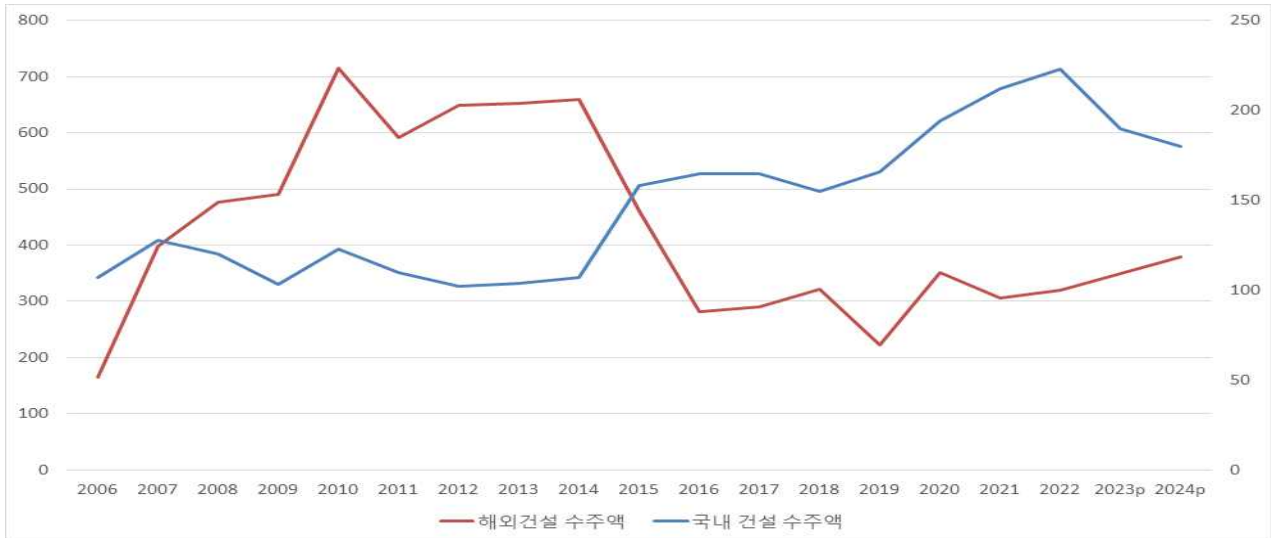
2024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 안정화 및 원전 등 대형 수주 가능성으로 380억 달러 전망

- 국내 주택 등 건설경기 하향으로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주전략이 해외수주 확대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팀코리아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수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호황을 누려왔던 아파트 등 국내 주택건설 시장이 원자재 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주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
- 2024년 네움시티 및 원전 등 대형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2024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해외건설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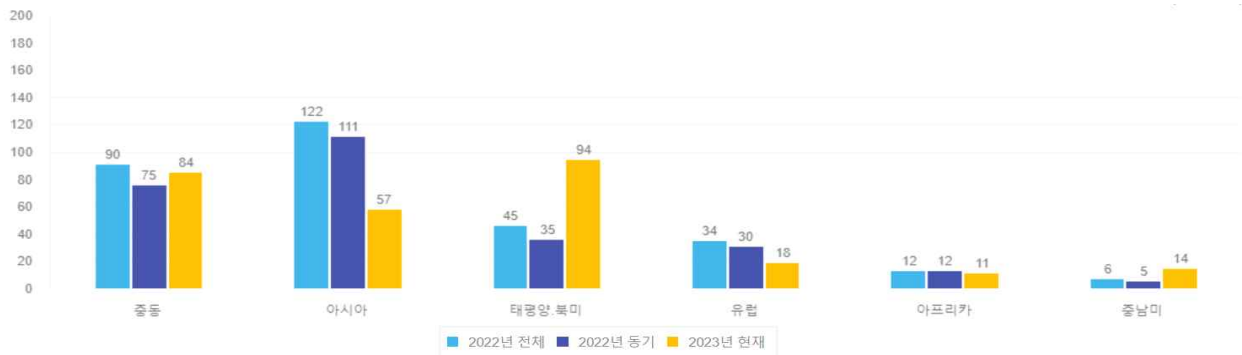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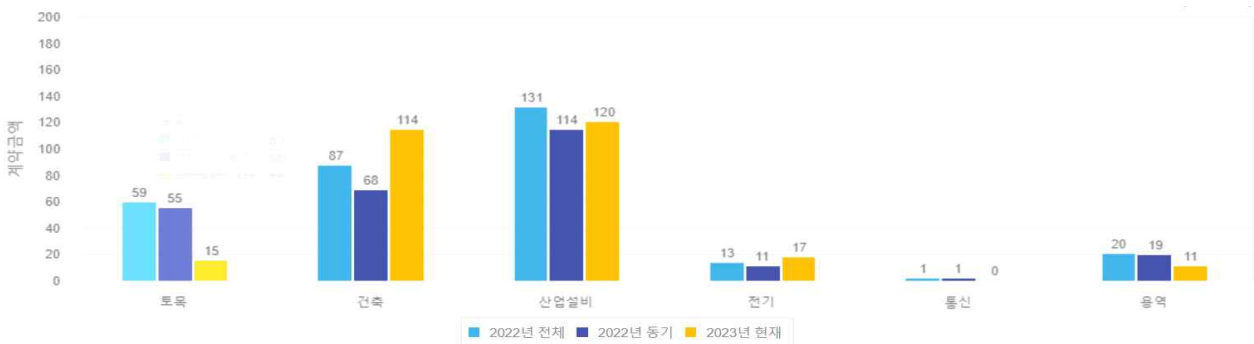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IV. 시사점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글로벌 금리안정 등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2024년 이후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5.8% 성장할 전망

- 2023년 세계 건설시장은 미국발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국 건설시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시장의 약세로 예상보다 부진
- 세계 최대 건설시장인 중국 시장의 약세는 세계 건설시장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건설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성장세를 이어감
- 글로벌 금리인하, 원자재 가격 안정 및 주요국 경기부양책 등으로 2024년 세계 건설시장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역시 금리 인하 등으로 건설경기 반등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전망
- 1,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화석에너지 기반 인프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 등 친환경 인프라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을 이끌 전망

국내 건설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해외수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네옴시티 및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으로 2024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80억 달러 전망

- 2022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223조 원을 기록했으나, 2023년은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 부진해 200조 원을 하회한 것으로 추정
- 국내 건설시장은 2019년 166조 원, 2020년 194.1조 원, 2021년 212.0조원, 2022년 223.5조원으로 호황을 이어왔으나, 2023년 국내 건설시장은 금리상승 및 정부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 2024년에도 국내 건설시장은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 전략이 국내에서 해외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
- 중동 발주 증가 및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으로 2024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연간 해외수주 400억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팀코리아 역량 강화가 필요

- 정체되어 있는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선 원전 및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교통 및 발전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



-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선 글로벌 발주가 정체되어 가는 플랜트 중심의 수주 포트폴리오를 인프라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
- 플랜트 및 시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역량을 인프라 및 사업개발·운영 분야로 밸류체인 확대가 필요하며, 사업개발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모델 “팀코리아” 체제의 활성화가 필요
- 원전 수주처럼 대형 발주는 정치 및 외교 등 국가간 협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패키지 딜의 확보가 중요